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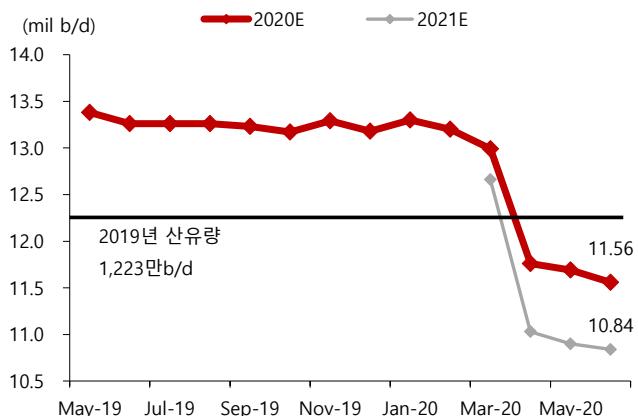
# energy snapshot

Analyst. 손지우 / 3773-8827, jwshon@skc.co.kr

## 더 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미국 산유량

- EIA가 발표한 6월 STEO에서 2020년 산유량 전망치 1,156만b/d. 그러나 전주 발표된 산유량이 1,050만b/d임. 자연가동률로 보나 전망치 대비로 보나 추가하락 쉽지 않음. 현재 이미 높은 재고부담 있기에 수급문제 재발 가능

**美 산유량 전망 2020년 1,156만b/d, 2021년 1,084만b/d**



자료 : EIA, SK증권

그런데 현재가 1,050만b/d라면? 추가하락 가능성 낮음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미국 에너지 정보청(EIA)의 6월 STEO(Short-Term Energy Outlook)가 발표되었습니다. 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데이터는 2020~21년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인데요. 일단 하락 지속입니다
  - 2020년 전망치는 1,169만b/d → 1,156만b/d로, 2021년 전망치는 1,090만b/d → 1,084만b/d로 낮췄습니다
  -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낮은 drilling activity, 쉽게 이야기해서 유전들의 가동률이 낮아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. 역시 최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유가가 그 원인이 되겠지요
  - 다만 낮아지는 폭은 확실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. 유가 전망치 또한 이번 달에는 올렸습니다. 결국 2020년과 2021년 산유량 전망치는 현재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만 있지 않을까 예상되네요

- 다만 우리가 STEO의 전망치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현재 산유량 데이터입니다
  - 전 주 1,050만b/d로 발표되었는데, 이는 13주 연속 하락에 해당하는 수치임과 동시에, 연초 고점인 1,310만b/d 대비 -19.8% 하락한 수치에 해당합니다
  - 사실상 2차 산업 설비들의 최대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최대 능력치 대비 -20%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
  - 그리고 STEO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해 약 1,150만b/d의 산유량이 예상되는데, 현재 수치는 이를 이미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
  - 결국 미국 산유량 데이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. 수요 탓에 재고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지금 순간이라면 또 한 번의 수급부담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